

경제

할레벌떡 가봤더니 “매진인데요”

대형마트 가격할인 소비자 우롱

경쟁사 의식 ‘싸게 팔기’ 고작 10원 저렴한 품목도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7일 12개 생필품 가격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홈플러스, 롯데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대형마트업체의 ‘가격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하 품목에 대한 충분한 물량확보가 뒤따르지 않아 상품이 조기 품절돼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평균 인하폭도 경쟁사에 비해 불과 10원 안팎이어서 ‘미끼상품’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7일 삼겹살, 즉석밥, 우유 등 12개 핵심 생필품 가격을 4~8%까지 인하, 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세계 이마트가 전격 가격인하를 단행한 7일 오후 곧바로 동일 12개 품목에 대한 가격인하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14일 “이마트보다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형마트 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소비자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경쟁사만 의식해 ‘준비 없는’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대형마트가 저가에 내놓은 생필품이 매장에서 일찌감치 떠나

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주부 임모(40)씨는 “시중에서 100g 당 1천900원선인 돼지고기를 반값에 판다가에 13일 마트를 찾았으나, 물량이 없다는 바람에 헛걸음했다”며 “유통업체가 가격인하를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쟁사보다 싸게 판다’는 선전에만 급급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초코파이 등 과자류, 바나나 등 일부 품목이 품절돼 물건을 충당하기도 했다.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파격적인 가격인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인하품목의 전체 가격 평균은 불과 10원 안팎이다.

결국 가격인하가 소비자를 배려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사보다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판다’는 경쟁

심리에서 이뤄졌다는 의미인 셈이다. 롯데마트 본사가 14일 발표한 가격인하 선언도 이런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비록 품목간 가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생필품 가격이 내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다”며 “실속 소용을 하려면 가격이 치중하기 보다는 동일 가격 대비 상품의 한량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가격할인 정책은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환경권 존비불량 때문에 소용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프라임제약 북경서 ‘비전5Y600’ 다짐

“올 매출 600억 달성 목표”

광주 유일 제약업체

광주에 본사를 둔 한국프라임제약(대표 김대익)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시무식을 갖고, 매출 600억원 달성 결의를 다졌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홍콩에서 ‘비전5Y600’(5년간 매출 600억 원 달성) 선포한 이후 매년 해외에서 시무식을 열고 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지난 2005년 184억원이던 연 매출액이 지난해 435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조직 안정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 ▲매출 확대 및 이윤 극대화 등 3대 경영전략을 세워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우수 사원을 표창했다. 이번 인사에서 양승철 경영지원부장과 강정규 공장장부장, 도재형 대구 영업부장 등 3명이 이사로 승진했다.

우수사원 표창에는 지난해 영업실적이 가장 좋았던 대구분실과 양길원(광주분실) 소장이 최우수상을, 마산분실과 김경수 소장, 안태선, 허순철, 조주연, 박동성 사원이 우수상과 함께 포상금

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기업 정책자금

3,213억 상반기 집행

광주시

광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등 모두 3천213억원

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금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 자금 250억원, 경영안정자금 1천 300억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지식산업 벤처기업 지원금 150억원 등이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무점포·미등록 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1천 200억원의 신용보증 공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보증지원 현장 이동’을 연중 운영, 전통시장과 골목길 상권은 물론 금융사각지대까지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보증발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자금은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062-955-4045)에서, 신용보증공금은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남구 금고 지위 光銀 당분간 유지

광주은행이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한 최종 법적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남구청의 구 금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부는 광주은행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금고 이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1월 30일 개최된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광주은행 선정)에 반하여 ▲금고의 지정 및 금고지정 계약 체결 ▲금고 이전을 위한 금고자금의 출금 및 이전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향후 제기될 본 소송의 확정 판결시까지 남구 구 금고의 지위를 유지,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영기자 penfoot@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 새단장

1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사옥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지점장 권이관) 준공식 참석 인사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이날 준공된 광주지점은 중소기업 연수시설 등을 새로 갖췄다. /\*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민 1인당 우편물

지난해 97통 보냈다

광주·전남 주민들은 지난해에 1인당 우편물을 97통 보냈으며, 104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에 비해 보내는 우편물(117통)은 62통이 적고, 받는 우편물(117통)도 13통 적은 것이다. 전남세신청(청장 이재홍)은 13일 2009년 광주·전남지역 우

체국을 통해 접수·배달된 우편물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은 전년보다 접수우편물 1.9%, 배달우편물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서 등의 일반 우편물은 2008년에 비해 1.9% 감소세를 보였지만, 우체국택배를 포함한 국내 소포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소포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접수건수는 1천180만여 통으로 9.5%, 배달의 경우 9백76만여 통으로 11.1%가 증가했다. /\*강필성기자 kps@

산은, 금호생명 인수 검토

산은금융지주가 금호생명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은은행 관계자는 14일 “산은은행이 사모투자펀드(PDF)를 조성해 국민연금 등과 공동으로 금호생명을 인수한 뒤 산은지주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며 “산은지주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보험사인 금호생명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금호 정상화·협력사 적극 지원”

광주 은 흥석우 중기청장... 재래시장 ‘은누리 상품권’ 전국화



홍석우(사진) 중소기업청장은 14일 “중소기업 정책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지다보니 현장과 유리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기업인의 시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정책체험’을 철저히 약속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홍 청장은 이날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 청장은 또 “중소기업청의 울주요 사업은 일자리 만들기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투자”라며 “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여건 개선에 전력을 바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구매 분리발주도 확산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주요사업 중 하나다. 홍 청장은 “그동안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면서 “올해는 재래시장에서 사용되는 ‘은누리 상품권’을 전국화해 백화점 상품권처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누리 상품권 발행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청장은 이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도 가졌다. 광주상의는 이 자리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호그룹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홍 청장에게 건의했다.

박흥수 광주상의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위약으로부터 지역 내 협력업체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금융 지원을 비롯해 금호그룹의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advertisement.

수원지구 롯데마트임대. Commerci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otte Mart in Suwon.

상무랜드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for Sangmu Land.

전국 판 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ationwide branches.